



멍 빼는 약

요약

멍 빼는 약은 멍이나 타박상 등 외상에 의한 통증이나 염증, 붓기 등을 완화시켜 주는 약이다. 증상이 있는 부위에 얇게 마사지하듯이 발라주며, 수시로 적용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

medication for bruising (영어)

동의어: 멍 빼는 연고, 멍약, 멍 연고

유의어·관련어: 타박상 약, 타박상 연고

타박상

타박상이란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 등에 의해 피부 안쪽 층에 손상을 입어 내출혈과 부종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에 출혈이 보이지는 않으나, 피부 속 조직이 파괴되어 속으로 출혈이 되면서 검푸르게 멍이 들 수 있으며, 눈 주위와 같이 피부가 얇은 부위에 더 잘 발생한다.

신체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으면, 조직과 모세혈관이 손상되고, 내부 출혈과 염증 반응이 발생하여 피부가 붉게 충혈될 수 있다. 이 때 혈관 밖으로 나온 체액이 조직으로 스며들면서 부종과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시간이 지나 혈액이 응고되기 시작하면 피부는 멍이 들어 검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고, 점점 노란색으로 변하며 퍼져나가는데, 이는 조직으로 새어나온 혈액 응고물이 흡수되며 없어지는 과정이다.

타박상은 대개 외부의 충격에 의해 생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을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섬유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우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아스피린과 같이 혈소판의 기능을 방해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 멍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으며, 간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혈액응고나 몸의 면역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혈액암이 있는 경우에도 멍이나 출혈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

타박상은 뼈와 근육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호전된다. 다만 빠른 호전을 위해 손상 후 첫 24시간 동안은 손상 부위를 높이 올리고 있거나, 냉찜질을 하는 것이 출혈과 부종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부종이 감소한 이후에는 혈관 확장과 관절 운동의 회복을 위해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멍과 붓기로 인한 불편감이 크다면 제거에 도움이 되는 외용제를 환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통증이 심하다면 먹는 소염진통제나 환부에 붙이거나 바르는 국소용 소염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종류

멍 빼는 약은 살리실산글리콜, 헤파린나트륨, 무정형에스신 등의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겔 형태의바르는 베노플러스® 등 과 헤파리노이드 단일 성분이 들어있는 노블루® 등이 있다.

살리실산글리콜은 통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며, 헤파린나트륨과 헤파리노이드는 혈액 응고를 억제해 멍이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무정형에스신은 염증을 완화시키며 모세혈관을 강화하여 붓기를 빼는데 도움을 준다.

효능·효과

멍, 타박상 등의 외상에 의한 통증이나 염증, 붓기 등을 완화시킨다.

용법

하루에 여러 번 사용 가능하며, 증상이 있는 부위에 얇게 마사지하듯이 펴바른다.

타박상

약물을 적용한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따가움, 발진, 가려움증 등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을 중지한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사항

살리실산글리콜, 헤파린나트륨, 무정형에스신 복합 성분 겔제

- 사용 시 일시적으로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다.
- 출산 4주 전의 임산부와 수유부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 소아의 경우, 너무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점막 부위나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는다.
- 5~6일간 사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헤파리노이드 단일 성분 겔제

- 5세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 눈이나 점막 부위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